

Weekly Brief  
R&I trends in **Europe**

KERC R&I News

# 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

2024.02.14.

# Content

## ▶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- ① EU, 한국과의 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 공모 개시(2.8)
- ② 영국-EU, 영국 연구자 및 기업에 Horizon 참여 촉구(2.12)
- ③ 집행위, 소형모듈형원자로(SMR) 유럽산업연맹 설립 추진(2.9)
- ④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, 기후중립산업법에 잠정 합의(2.8)
- ⑤ EU, '기후중립산업법(NZIA)' 최종 타협안 합의(2.8)
- ⑥ EU 이사회, '인공지능법(AI Act)' 타협안 최종 승인...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(2.6)
- ⑦ EU, 5G 등 통신 인프라 신속 보급을 위한 '기가비트인프라법(GIA)' 합의(2.6)

## ▶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- ① IHI, 보건 연구혁신 신규 공고에 1억 2,000만 유로(2.8)
- ② KIAT, 2023 이스라엘 주요 산업 동향 자료 시리즈 발간
- ③ 집행위,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에 관한 팩트시트 발간(2.13)
- ④ 유럽통계청(Eurostat), "EU 여성 과학기술자 비율 41%"(2.12)
- ⑤ 유럽방위청(EDA), 최우수국방논문상 2024 공모 개시(2.9)
- ⑥ MSCA PF, 포닥 연구자 1,249명에 2억 6천만 유로(2.13)

## ▶ EU 연구성과

- ① EU 과학자 30인, 천문학 및 수학 부문 저명한 과학상 수상
- ② (연구모음) 해양쓰레기 처리 Horizon 프로젝트 12개



# 1.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## ① EU, 한국과의 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 공모 개시(2.8)

- EU의 반도체 연구 파트너십인 Chips JU는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포함해 총 2억 1,600만 유로의 세 가지 연구 제안 요청을 개시
  - 반도체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EU 민관 파트너십인 칩공동사업단 (Chips JU)는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요청
  - 이번 공모는 총 EU 예산 2억 1,600만 유로로 시작된 세 가지 요청 중 하나로, 나머지 하나는 더 높은 TRL의 혁신 프로젝트를, 다른 하나는 더 낮은 TRL의 연구혁신 프로젝트를 다룸
  - 공고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연구혁신 관계를 강화하고, 양국의 공동 이익 분야의 사전 경쟁 프로젝트에 협력하며, 추가 협력을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※ EU와 미국 연구진 역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 한-EU 공동 연구 제안 요청만큼 공식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-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는 600만 유로가 배정되었으며, 한국 측에서도 이와 같은 금액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
  - 공모 세부사항에 따르면 연구 주제는 “미래 반도체 부품 및 시스템을 위한 이기종 통합 및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”에 초점을 맞춤
  - 뉴로모픽 컴퓨팅은 인간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것을 포함하며, 처리 능력을 높이면서 전력을 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
  - 국제 협력은 EU 반도체 전략과 ‘23년 채택된 칩법(Chips Act)의 핵심으로 유럽은 이 핵심 기술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음
  - 초기 단계(TRL 2~4)의 상업화 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이번 요청은 대학, 연구 및 기술 기관, 민간 기업에 열려 있음
  - EU 컨소시엄은 Horizon Europe을 통해 지원되며, 한국 측 컨소시엄은 한국연구재단(NRF)에서 지원, 두 컨소시엄이 함께 한-EU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됨

- 또한, 양국은 반도체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3월 25일~26일 브뤼셀에서 제1회 한-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개최할 예정
  - 이는 양국이 '22년 11월 체결하고 '23년 6월 출범한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, 반도체 분야는 고성능컴퓨팅/양자기술, 5G/6G, 플랫폼 경제,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과 함께 파트너십의 주요 협력 분야 중 하나
  - 한국의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양국의 연구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semiconductors/eu-launches-joint-call-south-korea-chips-research>>

## 2 영국-EU, 영국 연구자 및 기업에 Horizon 참여 촉구(2.12)

- EU 연구혁신 집행위원 이바노바는 브렉시트(Brexit)로 인한 3년간의 공백 이후 영국의 Horizon 프로그램 참여를 회복시키고자 Horizon Europe에 대한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
  - 이는 영국 기업과 연구자를 Horizon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여러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, 집행위원은 지난 2월 12일 런던 왕립 학회에서 영국 과학부 장관 도넬란과 만남을 가짐
  -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은 '21년 이후 계속해서 지연되다가 '24년 초에야 이루어짐
  - 이에 따라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필라2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Horizon 2020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
  - 이에 따라 지난 달 영국은 기업들이 Horizon Europe 공모에 신청하도록 장려하고, 학계, 특히 신규 신청자가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최대 1만 파운드를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였음
  - 영국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이 'Pump priming' 보조금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, 개념 증명, 시장 조사, 출장, 회의, 교육 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

- 방문의 일환으로 집행위원은 영국 인공지능 장관 베리와 함께 런던에 있는 Francis Crick Institute를 방문, 13일 화요일에는 스코틀랜드 장관과 대학 관계자를 만날 예정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horizon-europe/ivanova-visits-uk-drum-horizon-europe-interest>>

○ EU 연구혁신 집행위원 이바노바와 영국 과학기술 장관 도넬란은 지난 2월 12일 런던 왕립학회에서 개최된 공동 행사에서 영국의 Horizon Europe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

- 영국과 EU 과학 수장은 영국 연구자와 기업이 Horizon을 통해 유럽 동료들과 협력하고, 일자리, 성장 및 과학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EU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촉구
- Horizon Europe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협력 프로그램으로, 영국 기업은 이미 동 펀딩의 혜택을 받고 있음
-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시작될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유럽 기업과 연구자들이 Horizon Europe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수만 개의 영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할 예정으로, 필라2 펀딩은 기업당 평균 45만 파운드를 제공

<출처 :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uk-and-eu-science-figures-british-researchers-and-businesses-work-together-with-eu-partners-through-horizon-and-apply-for-grants-to-boost>>

○ 영국은 지난 40년 동안 4만 7,000개 이상의 EU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80억 파운드를 수여받음

- 관계자들에 따르면 Horizon Europe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관심 분야를 가진 영국 기업은 약 6만 6,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
- Horizon Europe 연간 예산은 약 110억 파운드로, 추가로 준회원국의 참여분담금도 더해지게 되며, 영국은 연간 약 20억 파운드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

<출처 : [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STATEMENT\\_24\\_765](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STATEMENT_24_765)>

### 3 집행위, 소형모듈형원자로(SMR) 유럽산업연맹 설립 추진(2.9)

- 집행위원회는 2030년대 초까지 유럽 내 소형모듈형원자로(SMR)의 개발, 시연 및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유럽산업연맹을 설립하고 있음
  -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SMR Alliance의 회원 신청을 개시, 연맹에는 공급업체, 전력회사, 전문 원자력 회사, 금융 기관, 연구 기관, 교육 센터 및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광범위한 SMR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음
  - 회원 신청은 4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, 배포 행사는 벨기에 EU 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의장국이 주최하는 국제 행사인 원자력 정상회담의 부대 행사로 3월 21일에 진행될 예정
  - 또한 늦은 봄 SMR 연맹의 창립 총회가 개최될 계획
  - 연맹의 주요 목표는 제조 및 혁신 역량을 활용하고 EU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의 원자력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임

- 격차 식별 및 해결,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유럽 원자력 공급망 강화
- 장벽 식별 및 제고, 금융 투자자, 산업계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SMR 프로젝트 발기인이 EU 시장 및 그 외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개발, 시연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
- 에너지 집약전 산업, 수소 생산자, 도시 지역 등 SMR의 잠재적인 산업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시키는 방법 확립
- Euratom 연구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첨단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미래 연구 및 혁신 요건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조정하며, 기후중립산업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 기술 아카데미 설립
- 유럽 SMR 프로젝트가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사회 단체 및 NGO와 협력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SMR에 대한 대중 참여를 촉진

<출처 : [https://energy.ec.europa.eu/news/commission-ally-industry-small-modular-reactors-2024-02-09\\_en](https://energy.ec.europa.eu/news/commission-ally-industry-small-modular-reactors-2024-02-09_en)>

#### 4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, 기후중립산업법에 잠정 합의(2.8)

-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린 테크 산업 강화를 위한 기후중립산업법에 합의
  - 유럽의회 협상 대표 엘러 의원은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(IRA)에 대응하는 것은 처음이라며, 이번 법 합의는 산업계 탈탄소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나 규제 프레임워크를 넘어선 그린딜 정책 시행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함
  - 동 법은 2030년까지 EU가 필요로 하는 기후중립 기술의 40%를 제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, 추가 보조금을 배정하지 않는 대신 전략 과제를 위한 승인 절차 단순화, 유럽 생산자 친화 공공 조달 규칙 개정, 지역 클러스터 발전 지원 등 투자 촉진 장치를 마련
  - 또한, 실제와 비슷하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는 샌드박스 규제 사용 권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예정
- 동 법이 추가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만큼, 유럽의회 의원들은 기후중립 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마련에 주력
  - 유럽의회 의원들은 친환경기술과 같은 중요 기술에 EU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전략기술플랫폼(STEP)에 동 법을 연계하기를 희망 하였으나, EU가 다년도 예산 계획을 조정함에 따라 동 예산은 100억 유로에서 15억 유로로 삭감됨
  - 유럽의원들은 배출가스 거래제도(ETS)로부터 나오는 회원국들의 수입을 기후중립 산업 지원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으며, 이 내용을 동 법의 법적 효력이 없는 설명 부분에 삽입하는 데에 성공
  - 엘러 의원은 이 조항이 회원국들의 ETS 수입의 사용을 위한 논의를 열어줄 것이라고 하며, 이 예산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함
- 동 법의 협상가들은 핵심기술 단일 목록 공개에 동의
  - 기존에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는 두 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한쪽을 '전략 기술'로 간주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음
  - 최종 목록은 태양 전지판, 풍력 터빈, 연료 전지, 수전해 장치, 배터리 및 그리드 기술 등을 포함

-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2040년까지의 목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집행위원회는 1990년 대비 90% 감소를 목표로 제안하고 있음
- 동 법은 재산업화를 촉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정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지역 클러스터인 '넷제로 가속 벨리'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
  - 동 법은 대규모 탄소중립 기술 프로젝트의 경우, 18개월,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2개월의 사업 기간을 제시
  - 엘러 의원은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미국의 세금 감면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행정 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
  - 회원국들은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위한 공공조달 및 경매에서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과 관련된 부분을 경매 물량의 최소 30%에 적용해야 하며, 비회원국의 경우, EU 내 특정 기후중립 기술 공급의 50% 이상을 차지할 때에만 이 기준이 적용됨
  - 동 법은 2월 14일 ITER 산업연구위원회의 표결을 시작으로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green-technology/eu-agrees-law-support-green-tech-manufacturing>>

## ⑤ EU, '기후중립산업법(NZIA)' 최종 타협안 합의(2.8)

<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/ KBA Europe 제공>

- 유럽의회,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6일(화) EU의 친환경 전환 기술 지원을 위한 이른바 '기후중립산업법(Net-Zero Industry Act, NZIA)' 최종 타협안에 합의
  - 동법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의 EU 역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
  -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하고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,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역내 사업자를 우대할 계획
  - 특히, 동법은 EU 역내 친환경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중 2030년까지 최소 40%를 역내 생산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

- 없음. 본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은 보조금 및 공공조달 제도를 개편할 수 있음
- EU의 기후중립산업법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대응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, EU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, 미국, 중국 등 글로벌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
  - [친환경 기술] 타협안은 광범위한 분야의 친환경 기술을 동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, 구체적인 기술별 지원 내용은 각 회원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데 합의
    - 당초 집행위 원안은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 저장, 전력 그리드, 탄소 포집저장 등 8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자금지원 간소화 등의 혜택 부여를 제안하였으나,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 동법의 지원 대상 기술 범위 확대를 요구
    - 다만, 환경단체는 한정된 자금이 여러 기술 분야에 분산됨으로써, 기후 목표 달성 효과가 뚜렷한 핵심 기술에 대해 지원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를 제기
  - [신속 허가] 동 법에 따라 전략적 기후중립 프로젝트에 대해 패스트트랙 건설허가 절차가 적용되며, 1기가와트(GW) 초과 또는 GW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8개월, 1GW 이하 소형 프로젝트는 최대 12개월 이내 허가를 부여해야 함
  - [기후중립밸리] 기후중립 기술 제조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후중립 기술 테스트를 위해 특정 지역을 기후중립밸리로 지정, 클러스터화를 지원
  - [공공조달] 동법에 따라 각 회원국은 향후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공공조달 사업의 1/3에 대하여 가격 기준 이외에 환경 지속가능성, 혁신에 대한 기여도, 에너지 시스템 통합 등 기준을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
    - 이와 관련, 업계 관계자는 비가격 기준 가운데 '지속가능성' 기준이 향후 EU 역내 기술을 우대하고, 역외 기술 및 제품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

- [재원] 동법은 친환경 기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, 유럽의회의 요구에 따라 전문(Recital)에 향후 배출권거래제도(ETS) 수익을 동 법상의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적시

<출처 : <https://kba-europe.com/board/kba-daily-hot-line/?uid=24335&mod=document&pageid=1>>

## 6 EU 이사회, '인공지능법(AI Act)' 타협안 최종 승인...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(2.6)

<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/ KBA Europe 제공>

- EU 이사회는 2일(금) EU의 '인공지능법(AI Act)'에 대한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의 최종 타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
  - 인공지능법은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 금지, 고위험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사용 제한, 첨단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 및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부여 등을 규정
  - G7, OECD 등 여러 다자간 협의체가 수년간 협의해 왔으나 대부분 자발적 가이드라인이나 행동강령 도입 등에 머문 반면, EU의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로 법적 의무를 도입한 것
  - 동 법은 이번 EU 이사회 승인과 함께 유럽의회의 승인 후 발효되며,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은 4월경 실시될 예정
- 작년 유럽의회 등과 3자협상을 통해 동 법 최종 타협안이 확정되었으나, 최근 독일,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EU 이사회 최종 승인 표결에서 반대할 것임을 시사해 논란이 된 바 있음
  - 오스트리아는 동 법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, 프랑스와 독일은 동 법의 첨단 인공지능 모델 관련 규정이 유럽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. 특히 독일은 동 법이 의료장비의 인공지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명할 것을 요구
  - 독일, 프랑스, 오스트리아와 동 법에 부정적인 이탈리아가 가세하면 법안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, 집행위가 독일 등 3개국의 우려를 불식할 별도의 공식 선언문 발표를 약속함에 따라 EU 이사회가 동 법을 만장일치로 승인

- 집행위는 회원국별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것이며, 전문가 그룹은 인공지능법 적용과 이행에 대해 집행위에 지원할 계획임
  - 특히, 전문가 그룹은 인공지능법이 의료장비법 및 기계류법 등 타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위를 지원할 계획
  - 또한, 각 회원국이 안면인식, 감정인식, 생체 범주화 등 기술의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 또는 추가 안전장치 도입을 허용할 방침
  - 인공지능 사무소(AI Office)는 범용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AI 모델 개발자들을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, 본 가이드라인에는 AI 학습 용도로 사용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정보 공개지침도 포함될 것임

<출처 : <https://kba-europe.com/board/kba-daily-hot-line/?uid=24329&mod=document&pageid=1>>

## 7 EU, 5G 등 통신 인프라 신속 보급을 위한 ‘기가비트 인프라법(GIA)’ 합의(2.6)

<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/ KBA Europe 제공>

- 유럽의회,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6일(화)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의 신속한 보급 확대를 위한 ‘기가비트 인프라법(Gigabit Infrastructure Act, GIA)’ 최종 타협안에 합의
  - 동법은 작년 2월 발의된 것으로 EU 역내 통신시장 분절화 및 회원국별 상이한 허가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사업자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
  - 집행위는 현재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EU 인구의 81%에게 제공되고 있으나, 도시와 지방간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판단, 통신 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
  - 동법에 따라, 회원국 정부 당국은 이동통신 타워 및 광섬유 인프라 건설 허가를 4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하며, 정해진 기간 내 정부가 허가 요청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
  - 회원국 정부는 자국내 모든 지역에서 관련 인프라 건설 허가가 동일하게

적용되도록 보장하고, 허가와 관련한 부담금은 행정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

- 동법에 따라, 모든 신축 빌딩 및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친 빌딩에는 반드시 광섬유 네트워크가 설치되어야 함

○ 동타협안에는 2029년부터 EU 회원국간 통화 및 문자 발신에 대한 추가요금 폐지가 규정된 점이 주목됨

- 이는 EU 이사회 및 통신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, 유럽의회의 요구가 수용된 것
- 다만, 집행위는 2027년 6월까지 회원국간 추가 통신요금 폐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, 2029년까지 현행 요금 통화 분당 €0.19, 문자 건당 €0.06의 요금이 계속해서 부과됨

○ 한편, 동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성립되며, EU 관보 게재 18개월 후부터 적용됨

<출처 : <https://kba-europe.com/board/kba-daily-hot-line/?uid=24331&mod=document&pageid=1>>

## 2.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### 1 IHI, 보건 연구혁신 신규 공고에 1억 2,000만 유로[2.8]

- 유럽보건이니셔티브(IHI)는 올 봄 1억 2,000만 유로 규모의 새로운 보건 연구혁신 학제간 프로젝트를 공모를 개시
  - IHI는 단일 기업이나 기관이 다룰 수 없는 보건 연구혁신 격차를 매우고 공공 EU와 민간 사업 자원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
  - 규모가 크고, 종합적이며, 사전 경쟁적인 프로젝트 특성상 팀 구성이 중요함에 따라, IHI는 공고의 초안 작성 단계에서 주제를 공개하여 연구원들이 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
- ※ IHI는 세계 최대 규모 민간 보건 파트너십으로,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어 공동으로 연구혁신의제를 다루고 연구와 EU 정책을 연결
  - '22년 IHI는 314개의 단일 참가자를 포함하여 16개의 프로젝트에 총 3억 6,600만 유로 중 절반을 지원

#	프로젝트	지원내용
Call 6	<b>환자들의 지속적인 약 복용</b> 만성질환(당뇨, 비만 등 심혈관대사질환) 보유 환자에게 대한 이해 제고 및 개선 모델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단계 지원전형(2-stage call)</li> <li>▶ 4월 16일까지 제안서 요약본 제출</li> <li>▶ 10월 10일까지 최종제안서 제출</li> <li>▶ 프로젝트 당 예산 2,460만 유로</li> </ul>
	<b>실사용데이터(real-world data) 및 증거의 사용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</b> 신약개발, 규제, 보건 기술 평가 및 납부자의 의사결정체계 지원을 위한 실용적 권고	
Call 7	<b>심장질환의 관리 개선</b>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종합적 접근법 고안 및 개인화된 환자 중심 해결책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툴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1단계 지원전형(1-stage call)</li> <li>▶ 5월 22일까지 제안서 제출</li> <li>▶ 프로젝트 당 예산 최대 9,500만 유로 (단, 최소 45%는 참가 컨소시엄에서 지원)</li> </ul>
	<b>의료진 보조</b>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다 업무량에 대해 기술적, 데이터 중심 해결책을 제공하여 의료진 지원	
	<b>바이오마커(biomarker) 임상실험</b> 환자 보유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지표 실험	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medical-technology/heres-how-eu-and-industry-will-spend-eu120m-health-research-spring>>

## 2 KIAT, 2023 이스라엘 주요 산업 동향 자료 시리즈 발간

-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가 주관하는 정책 간행물인 '글로벌 산업정책·기술·시장동향'은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 동향을 시리즈로 발간
  - 이스라엘 주요 산업 동향 보고서 시리즈는 GT 이스라엘 거점인 한국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(KORIL)이 제공

- [이스라엘 푸드테크 산업 동향\('23.09\)](#)
- [이스라엘 기후기술 스타트업\('23.09\)](#)
- [이스라엘 스마트시티 현황\('23.09\)](#)
- [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동향\('23.10\)](#)
- [이스라엘 교육시스템 동향\('23.10\)](#)
- [이스라엘 로봇 산업 동향\('23.10\)](#)
- [이스라엘 방위산업 시장 동향\('23.10\)](#)
- [이스라엘 핀테크 산업\('23.10\)](#)
- [이스라엘 의료 산업 동향\('23.11\)](#)
- [이스라엘 사이버보안 산업 동향\('23.11\)](#)
- [이스라엘 반도체 산업\('23.12\)](#)
- [이스라엘 차세대 산업 동향\('23.12\)](#)

<출처 : <https://www.gtonline.or.kr/kor/gtbase/all/data/policy/dataList.do>>

## 3 집행위,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에 관한 팩트시트 발간(2.13)

- 집행위 연구혁신총국(DG RTD)는 새로운 ERA 플랫폼에 유럽단일 연구공간(ERA)에 대한 팩트시트를 게시함
  - 팩트시트는 ERA의 목표, 이정표 및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

<다운로드 : <https://europeanresearcharea.ec.europa.eu/sites/default/files/2024-02/the%20european%20research%20area-KI024089ENN%20%281%29.pdf>>

#### 4 유럽통계청(Eurostat), “EU 여성 과학기술자 비율 41%” [2.12]

- Eurostat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‘22년 EU 여성 과학자 및 기술자는 약 730만 명에 달함
  - 이는 ‘21년보다 31만 명 더 많은 수치로, 과학 및 공학 분야 전체 고용의 41%를 차지
  - 과학자 및 엔지니어로 고용된 여성은 주로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어 해당 부문의 46%를 차지한 반면, 제조업에서는 22%에 불과했음
- EU 회원국 중 여성 과학기술자의 비율은 덴마크(53%), 리투아니아(52%), 불가리아(51%)부터 헝가리(31%), 핀란드(32%), 독일(34%)까지 다양하게 나타남

<출처 : <https://ec.europa.eu/eurostat/web/products-eurostat-news/w/ddn-20240212-1>>

#### 5 유럽방위청(EDA), 최우수국방논문상 2024 공모 개시[2.9]

- 유럽방위청(EDA)는 지난 2월 9일 2024년도 EDA 연구·기술·혁신 논문상 공모를 개시
  -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동 어워드는 오는 3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며, 오는 6월 파리 Eurosatory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
  - 올해 공모 주제는 ‘향상된 미래 국방 역량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, 프로세스 및 애플리케이션’으로, 수상자에게는 각각 4천 유로가 수여됨
  - 동 어워드의 목표는 국방 커뮤니티에 그들의 작업을 소개함으로써 초기 경력 연구원의 작업을 홍보 및 지원하고, 혁신가의 참여를 촉진하여 새롭고 잠재적으로 와해성 연구에 대한 접근을 넓히고 미래 국방 역량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것임
- ※ 동 어워드는 EDA의 27개 참가 회원국에 열려있으며, ‘24년부터 스위스도 참여할 수 있음

<출처 : <https://eda.europa.eu/news-and-events/news/2024/02/09/eda-opens-contest-for-best-defence-research-papers>>

## 6 MSCA PF, 포닥 연구자 1,249명에 2억 6천만 유로[2.13]

- 마리퀴리 포닥 펠로우십(MSCA PF) 2023년도 공모에 따라 집행위는 1,249명 포닥 연구자에 총 2억 6천만 유로를 수여할 예정
  - 동 공모에는 총 8,039명의 연구자가 지원하였으며, 이 중 15.8%가 선정됨
  - 유럽포닥펠로우십은 1,110명의 연구자가 EU 및 HE 준회원국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 2억 2,140만 유로를 지원
  - 글로벌포닥펠로우십은 139명의 연구자가 제3국(미국, 스위스, 캐나다, 일본 등)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유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 3,907만 유로를 지원
  - 선정된 연구자는 80개국에서 왔으며, 45개국에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
  - 선정된 연구자 중 여성은 42%를 차지
  - 선정된 프로젝트 중 25.2%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뒤를 생명과학(21.7%), 화학(14.4%), 정보과학 및 공학(13.3%), 물리학(11.35%), 환경 및 지질학(10.2%), 수리학(2.15%), 경제 과학(1.7%) 등이 이음
- MSCA 우수 인증(Seal of Excellence)
  - 평가 점수가 85% 이상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1,737명의 지원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대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MSCA 우수 인증이 수여됨

<출처 : <https://mariesklodowska-curieactions.eu/news/mariesklodowska-curieactions-awards-260-million-to-postdoctoral-researchers-in-2023>>

### 3. EU 주요 연구성과

#### ① EU 과학자 3인, 천문학 및 수학 부문 저명한 과학상 수상

- EU의 지원을 받은 수학자 Claire Voisin, 천체물리학자 Conny Aerts 및 Jørgen Christensen-Dalsgaard는 수학과 천문학 분야의 권위 있는 크래푸어드(Crafoord)상을 수상
- 2024 Crafoord 천체 물리학상
  - Christensen-Dalsgaard(덴마크)와 Aerts(벨기에)는 “우주지진 관측법을 개발하고 이를 태양과 다른 별들의 내부 연구에 적용한 공로”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Douglas Gough와 공동으로 2024년 Crafoord 천문학상을 수상
  - 수상자들은 지진학의 개념을 천문학 분야에 적용하여 태양과 다른 별의 내면을 조사하기 위해 별 표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춤
  - 이처럼 별 표면의 움직임이 음파와 같은 내부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우주지진학이라고 함
  - Christensen-Dalsgaard 명예교수는 우주지진학의 1세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, EU의 연구 프로젝트인 [ASTERISK](#)의 지원을 받아 항성 진동에 대한 첨단 관측과 최첨단 별 모델링을 결합하고 저질량 저온 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음
  - Douglas Gough 연구팀은 1995년에 GONG 망원경이라는 네트워크를 설립하고, 태양의 내부가 외부 층과 어떻게 다르게 회전하는지와 같은 새로운 발견을 하였음
  - Aerts 교수는 동일한 방법으로 먼 별을 탐사, EU의 [PROSPERITY](#)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별 내부와 별의 진화를 조사했으며, 몇 년 후 [MAMSIE](#)라는 또 다른 EU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대 항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, 현재는 [4D-STAR](#)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별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
  - Aerts 교수는 천체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행성의 나이를

정확하게 측정하여 은하계가 화학적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그 안에서 별과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

### ○ 2024 Crafoord 수학상

- 프랑스 수학자 Claire Voisin은 “호지 이론, 대수 순환, 하이퍼켈러 기하학을 포함한 복잡하고 대수적인 기하학에 대한 뛰어난 공헌”으로 올해 수학 부문 Crafoord 상을 수상
- Voisin 박사의 대수기하학 연구는 Kodaira 문제와 같은 유명한 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
- Voisin 박사는 대수학과 복소기하학의 주요 미해결 문제인 호지 추측 (Hodge conjecture)의 주요 연구자로, 최근 기하학적 모양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
- [HyperK](#) 프로젝트를 통해 Voisin 박사는 Hyperkähler 기하학을 현대 수학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중력이 공간과 시간 모두를 휘게 하고 우주가 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는 과학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

#### ASTERISK

- 펀딩 : ERC
- 기간 : 2011.04.01.~2016.03.31.
- 예산 : 약 25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AARHUS UNIVERSITET (덴마크)

#### PROSPERITY

- 펀딩 : ERC
- 기간 : 2009.01.01.~2013.12.31.
- 예산 : 약 25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(벨기에)

#### MAMSIE

- 펀딩 : ERC
- 기간 : 2016.01.01.~2021.08.31.
- 예산 : 약 25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(벨기에)

### 4D-STAR

- 펀딩 : ERC
- 기간 : 2023.09.01.~2029.08.31.
- 예산 : 약 1,00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(벨기에)

### HyperK

- 펀딩 : ERC
- 기간 : 2020.09.01.~2026.08.31.
- 예산 : 약 853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RHEINISCHE FRIEDRICH-WILHELMS-UNIVERSITAT BONN (독일)

<출처 : 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49263-three-eu-backed-scientists-win-major-prize-in-astronomy-and-mathematics>>

## 2 [연구모음] 해양쓰레기 처리 Horizon 프로젝트 12개

- EU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2030년까지 건강한 바다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해양쓰레기는 해안선뿐만 아니라 먼 바다, 가장 깊은 해구 바닥, 심지어 해빙이 있는 극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음
  - 해양 생물이 해양쓰레기를 섭취하거나 다른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, 이러한 노출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음
  - EU 미션 '2030년까지 해양 및 수자원 복원' 미션은 EU 제로오염 실행 계획에 따라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 50% 줄이고 환경으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30%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
  - 또한, 유럽그린딜 정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'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'은 EU 바다의 30%를 보호하는 등 해양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함
- 해양쓰레기란 연안이나 해양 환경에 유입되는 사람이 만든 모든 고체 물질을 뜻함
  - 가방, 병, 버려진 낚시 장비를 포함한 플라스틱은 해양쓰레기 중 가장 크고, 유해하며,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음
  - 매년 1,900만~2,300만 톤이 해양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되며,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양은 2030년까지 5,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-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은 풍화되어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며, 직경이 5mm미만인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직경이 1mm의 1,000분의 1 미만으로 더 작은 플라스틱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정의됨
  -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전 세계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음
  - 특히 이러한 플라스틱에 포함된 첨가제와 이러한 입자에 흡수되는 오염 물질은 해양 유기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,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혁신적인 전략과 도구가 필요함

- 동 연구모음은 해양쓰레기의 발생 근원지부터 바다까지 예방, 제거, 완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12개의 Horizon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
  - EU 연구원들은 해양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이 바다로 운송되는 방법, 플라스틱 포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분해성 대안제 개발, 향상된 폐기물 및 폐수 관리, 개선된 재활용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음
  -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, 지구가 대처할 수 있는 경계를 존중하여 독성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EU의 목표에 기여할 것임

### 1. Limnoplast

청소년 및 시민과 함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, 유럽 전역의 강과 해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

- 펀딩 : MSCA
- 기간 : 2019.11.01.~2023.12.31.
- 예산 : 약 40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UNIVERSITAT BAYREUTH (독일)

### 2. PlasticPiratesEU

위 와 동일

- 펀딩 : 클러스터 6
- 기간 : 2022.06.01.~2024.11.30.
- 예산 : 약 20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DEUTSCHES ZENTRUM FUR LUFT - UND RAUMFAHRT EV (독일)

### 3. EUROqCHARM

플라스틱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참조 물질을 검증하고 프로토콜을 조율

- 펀딩 : Societal Challenges
- 기간 : 2020.11.01.~2023.10.31.
- 예산 : 약 204만 유로 (EU 지원 100% 유로)
- 총괄 : NORSK INSTITUTT FOR VANNFORSKNING (노르웨이)

#### 4. MONPLAS

미세플라스틱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과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 연구자들을 교육

- 펀딩 : MSCA
- 기간 : 2020.01.01.~2024.03.31.
- 예산 : 약 391만 유로 (EU 지원 100% 유로)
- 총괄 : ASTON UNIVERSITY (영국)

#### 5. B4PNow

가정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완전 바이오 기반 수용성 소재를 개발

- 기간 : 2020.12.01.~2022.11.30.
- 예산 : 약 115만 유로 (EU 지원 약 80만 유로)
- 총괄 : B4PLASTICS (벨기에)

#### 6. EcoFLEXY

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셀룰로오스로 만든, 완전 퇴비화 가능한 포장용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여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게 함

- 기간 : 2021.04.01.~2023.09.30.
- 예산 : 약 340만 유로 (EU 지원 약 238만 유로)
- 총괄 : CELUUGY (덴마크)

#### 7. VORTEX

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특정 미생물을 식별

- 펀딩 : ERC
- 기간 : 2018.06.01.~2024.05.31.
- 예산 : 약 20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STICHTING NEDERLANDSE WETENSCHAPPELIJK ONDERZOEK INSTITUTEN (네덜란드)

#### 8. LEON-T

타이어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확산과 환경적 운영을 모델로 삼아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타이어를 개발

- 펀딩 : SOCIETAL CHALLENGES
- 기간 : 2021.06.01.~2024.11.30.
- 예산 : 약 411만 유로 (EU 지원 약 400만 유로)
- 총괄 : IDIADA AUTOMOTIVE TECHNOLOGY SA (스페인)

## 9. Glaukos

어망, 상자, 의류에 사용하기 위해 생분해 속도가 더 빠른 새로운 생분해 및 퇴비화 가능한 재료를 만듦

- 펀딩 : SOCIETAL CHALLENGES
- 기간 : 2020.06.01.~2024.05.30.
- 예산 : 약 500만 유로 (EU 지원 약 420만 유로)
- 총괄 : BIO BASE EUROPE PILOT PLANT VZW (벨기에)

## 10. SEALIVE

위와 동일

- 펀딩 : SOCIETAL CHALLENGES
- 기간 : 2019.10.01.~2024.03.31.
- 예산 : 약 1,030만 유로 (EU 지원 약 853만 유로)
- 총괄 : INSTITUTO TECNOLOGICO DEL EMBALAJE, TRANSPORTE Y LOGISTICA (스페인)

## 11. In-No-Plastic

해양 환경과 산업 수역에서 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 도구 개발

- 펀딩 : SOCIETAL CHALLENGES
- 기간 : 2020.10.01.~2024.03.31.
- 예산 : 약 743만 유로 (EU 지원 약 600만 유로)
- 총괄 : SINTEF AS (노르웨이)

## 12. SeaClear

수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자율 청소 로봇 개발

- 펀딩 : INDUSTRIAL LEADERSHIP
- 기간 : 2020.01.01.~2023.12.31.
- 예산 : 약 500만 유로 (EU 지원 100%)
- 총괄 : TECHNISCHE UNIVERSITEIT DELFT (네덜란드)

<출처 : 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49175-tackling-marine-litter-from-source-to-sea>>